

송년칼럼

뒷날 위한 정책

또 한해가 저무는구나!
내 나이 69세이니 칠들기 시작한 20세 때부터 기산(起算)하면 무려 40여회 되돌아 해 온 년두리다. 그 술한 년두리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지만 금년 세모(歲暮)의 그것은 유달리 진한 감동으로 마음 속 밑바닥에

差損)에 의해 하루아침에 5천불로 평가절하되었다.

고인의 말에 '득이수난(得易守難)'이란 것이 있다. 즉 알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공이 인정되어 대권을 차지했던 현 대통령에게 오늘 다시 그날과 같은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있을 때 절약하라'는 경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이미 모아놓은 국부(國富)를 무슨 전리품이나 되는 양 막 쓴 것이다.

여행자유, 외제도입자유 등의 조치가 열릴 보기에는 국민들을 어떤 억압에서 풀어주는 구세주 같았지만 결국 이 지경으로 나타났으니 그간에 누리던 향락으로 오늘의 수치를 상쇄(相殺)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위정자의 탓만도 아님을 반성해야 한다. '내 돈 내가 쓰는 데 무슨 상관이나'는 식으로 자기 이익만을 쫓아온 사업가 여행자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한편 국민의 손으로 뽑은 새 대통령의 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부터 못할 일들이라면 그저 노력만 하면 되겠지만 비록 거름이나마

재법 부위에 눈을 뜬 국민들을 끌고 바닥에서 다시 살아나려는데 어찌 선거유세때의 공약남발하던 것처럼 달콤한 말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 현실은 마치 환자의 환부를 때어 내기 위해 칼을 든 의사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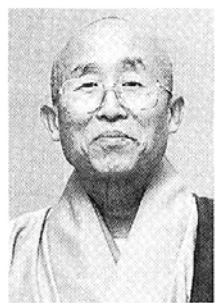
이 꼭 필요한 고통은 참아달라고 요구할 줄 아는 위정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추락한 한해였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신뢰는 커녕 관료체제와 집권세력 내부의 신뢰조차 얻지 못했다. 대북관계도 신뢰구축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

결론으로 하루하루 바람결에 물리고 있는 어려운 나라살림을 맡아 수습해야 할 새 대통령이 안쓰럽고 세모가 유난히 가슴아프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정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대변해준 사례라는 것이 불교계의 분석이다. 즉 정치인은 종교지도자의 존엄성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 종교의 신성성과 위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정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잘 대변해준 사례라는 것이 불교계의 분석이다. 즉 정치인은 종교지도자의 존엄성마저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뿐 종교의 신성성과 위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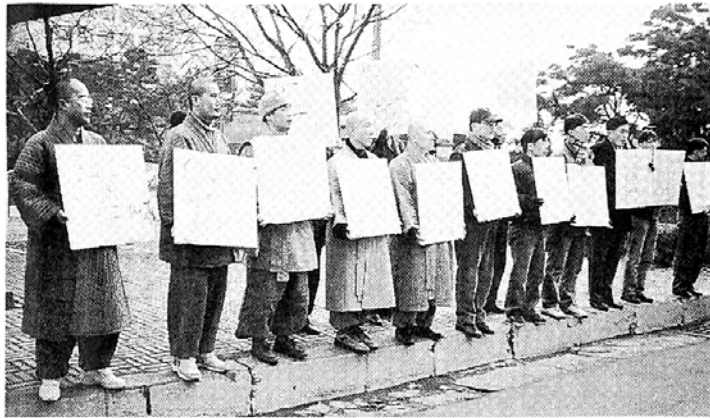
〈동국경원장·봉선사 회주〉

새 대통령은 환부 떼내는 의사

이 꼭 필요한 고통은 참아달라고 요구할 줄 아는 위정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에 참여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운스님을 방문한 김대중후보와 국민회의 당직자들. 공명선거 완장을 착용한 선관위 직원들이 눈길을 끈다.



16일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이 필승 이회창 후보를 내렸다"고 밝힌데 대해 이회창불교도교육구반대위원회가 17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열린마당

종교와 정치의 만남

"교계 냉철하자" 체질개선 필요

지명(침계사 주지)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아직도 불교계에는 자성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권에서 온 것이 아니라서 불교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마저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관습처럼 도착되어 버린 의식으로 선거에 임하는 느낌을 주었다. 유권자가 '이기는 쪽은 이미 정해졌다'는 자세로 여타후보의 정치적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바람처럼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길들여진 정치감각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연연하는 자세가 일부지역에서 역력했던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일부 종단의 지도자들이 상식

밖의 자제로 정치권을 대했던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불교를 표방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계와 지도자들의 얕은 정치인식에서 온 것이다. 종교계의 지도자나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으로 힘을 표출해야 한다. 이 상식을 집단의 힘으로 확대시키려는 데서 정치인들이 종교계의 문을 두드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때 선거가 끝난 뒤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토록 간절했던 호소와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누구보다 종교인, 그중에서도 불교인이 냉철해야 한다. 정치권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불교계 스스로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목적 갖고 이용하면 사회혼란

정천구(영산국제선임대 총장)

정치인에게 종교집단은 종교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로 보일 뿐이다. 그래서 정교분리가 정책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의 원칙일뿐 현실화 되지 않게 마련이다. 종교계도 정치집단을 정치적 의미보다는 종교발전의 방편으로 보려는 시각이 놓여있다. 역시 종교계가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때 정교분리는 혼돈의 길에 빠지고 만다.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만날 수 있는 범위와 만나서는 안될 선을 긋는 지혜는 정치인에게나 종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한다는 생각이나 종교가 정치를 이끈다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정교분

리의 원칙과 서로의 이익이라는 현실이 혼돈의 길에서 방황했다. 정치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선에서 종교는 자리를 지켜야하고 종교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선에서 정치인의 지리가 지켜지지 못했다. 그 와중에 정치인으로서의 파멸적인 행태도 노출됐고 종교인으로서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도 드러났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나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 만나면 사회 질서와 가치의 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이익을 타진하기 밖에는 서로에게 지혜와 발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깨끗한 자리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날때 공명선거도 실현될 수 있고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15대 대선 정교분리 지켜졌다

정치권, 불교계를 표방으로 인식 교계, 당직자들과 스스로 접촉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종교계의 표를 호소하는 것은 오랜 관례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정치권 이용' 논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입후보 당직자와 당직자 후보자 부인들을 통해 불교계에 10건 이상씩의 공약을 내놓으며 종단 지도자와 각 사찰주지스님들을 공식 비공식적

으로 접촉했다. 불교계에서도 그들의 접촉에 스스로 없이 응했으며 각종 행사장에 후보자나 당직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과거 특정후보의 '당선 기원법회'까지 개최했던 점에 비하면 이번 선거를 대하는 불교계의 태도는 비교적 자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속이 흰히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사찰을 저자거리 드나들 듯

찾아 오는데 대해 아무런 검토없이 문을 열어 준 것이나 그들에게 모종의 반대급부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자성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미확인 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불성 사나운 사례가 발생한 것은 불자들의 반목을 사기에 충분했다.

학자들은 선거와 같은 기민한 시간 앞에서 정치권과 종교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 잡는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정교분리는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임연태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증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

상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고통회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라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광각판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밀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추스리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잠이안왔던 동안을 모두 건넌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